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 담담한 천사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röger, 1934~)와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1935~)은 1960년대 초반 한국 땅을 밟은 뒤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우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두 간호사는 2005년 은퇴할 때가 되자, 소록도 식구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가로서 두 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쓰는 동안, 저는 수차례 소록도를 방문해 취재를 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일생 동안 온전히 무소유를 실천하며 환우들을 돌보는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분을 천사, 혹은 성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분은 칭찬을 몹시 불편해하십니다.

“우린 그저 간호사로서 할 일을 즐겁게 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했어요. 왜들 그렇게 치켜세우는지...” 참으로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두 분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대단히 훌륭한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성녀’처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리안느와 마가렛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젊은이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의 더 가난한 나라로 봉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 친지는 “간호사 일이 적성에 맞았고, 그 분야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기에 두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더군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이며 담담한 그분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성녀가 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10대 중반 이른 나이부터 병원 실습을 시작한 두 간호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익혔고, 직업 전선의 최전방에서 활약했습니다. 훌륭한 간호사는 가장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 곁에 있기를 원하겠지요. 간호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소록도로 그분들이 오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은 이상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온몸으로 실현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로 향하는 깊은 신앙을 빼놓고서 이분들의 행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과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진심으로 영혼 끝까지 정성을 다한다면,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우리 삶 안에서 열릴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교회상식

급히 병자성사를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원목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면 관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본당 신부에게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본당 신부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당의 사목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에게 병자성사를 받아야 돌아가신 다음에도 냉담 중이던 가족이 다시 본당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정이 매우 급박해서 본당 신부가 아닌 분에게 병자성사를 받았다 해도 일단은 본당에 알리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병자가 돌아가시게 되어도 관할 본당의 후속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